

# 대구주보

사순 제2주일

2011. 3. 20.(가혜) | 제720호 |

주일의말씀

##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최광경 비오 신부  
성바울로성당 주임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씨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탈출4,10)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모세는 카리스마나 말재주도 없이 전전긍긍하며 험한 삶을 주님과과의 약속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허기지고 두려운 나머지 간청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1열왕19,4)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힘겨운 삶을 산 그들은 영광의 예수님과 한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 하느님 아들,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빛으로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제자들에게 인간 예수님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아직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시 산에서 내려오시어 당신 죽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높은 산 위로 데려가신 것은 시간이 흘러 당신이 체포되고 유대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당신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이 먼저 기꺼이 그 수난을 받아들이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모든 예언자들이 겪은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십자가를 향한 길 위에서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하고, 편안함과 안전과 즐거움에 이르면 모든 것이 그만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진과 원전폭발로 곤경에 처한 일본 국민과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2차 헌금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주어야 한다.”

### – 서정길 대주교님과 해외 원조

문화홍보실

1954년에 선종하신 최덕홍 주교님의 뒤를 이어 대구교구의 교구장이 되신 분은 서정길 세례자 요한 대주교님이십니다. 많은 교우들이 대주교님의 생전 모습과 교구장으로서는 교구를 이끄시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교님께서 착좌하셨을 때 교구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대주교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6·25 동란이 끝난 지 겨우 5년, 우리나라는 아직 전란이 활취고 지나간 상처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덕홍 주교님께서 그 어려운 와중에 많은 일을 이루고 돌아가셨지만, 대구교구는 초대 교구장 드망즈 주교님께서 처음 부임하셨을 때처럼 맨주먹이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려웠을 지도 모릅니다.

서정길 대주교님은 ‘당신 나라가 임하소서(Adveniat Regnum Tuum)’를 사목표어로 정하시고, 교구를 정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서 대주교님께서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원조를 청하셨습니다. 직접 유럽의 잘 사는 나라들을 찾아다니셨으며, 체면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벌리셨습니다. 요즘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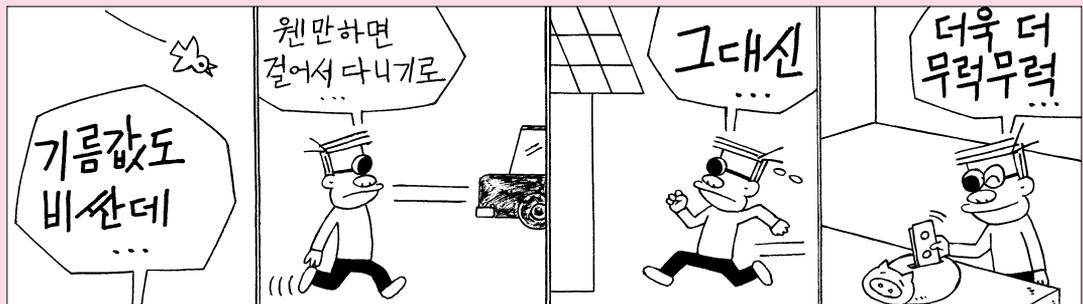
을 짓는 신부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하루에 여러 번씩 큰 분당들에서 강론을 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우리 교구와 자매의 연을 맺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대교구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대주교님의 호소에 응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돈으로만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봉사자들을 보내 주기도 하였고 평신도 사도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경험이 많은 신부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0등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대구대교구도 그 규모나 활약으로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교구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우리 교구를 찾아오는 외국 형제들이 적지 않고, 우리에게서 경험과 지식을 얻어가려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어려운 형편에 처한 다른 나라 형제들을 도와주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은 은혜를 갚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 희생하는 만큼...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사순 제2주일

입당성가

72 다불 산의 예수

화답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파견성가

166 생명의 양식

영성의 향기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말이 무엇보다 먼저 뜻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영하는 성체는 우리를 예수님께 결합시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당 건물은 이 몸을 눈에 보이도록 표시하는 상징이고 그 몸을 이루는 성체사를 거행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말은 바로 교회를 두고 사도 바오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몸이라면 한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나누고 있는 생명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례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 머리가신 예수님과 생명을 공유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몸에 결합된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였듯이 그분의 몸에 결합되어 있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맙시다



조지 버밍햄은 세상에 소설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본래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이 초등학교 교장을 맡고 계시던 어느 해, 매년 교실 크기를 적어 보고하는 서류를 잊고 내지 않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끝이 난 신부님은 다음 해에 그 서류에 교실 크기를 "성베드로 대성당과 같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내 여행가방과 같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역시 아무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만 접수되면 되고 실제 정보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 율겨은 글입니다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대사 미사**  
일시: 3.25(금) 11:00, 성모당

— 행사 / 모임 —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3.28(월) 20:30, 요안나미용학원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교구 100주년 기념 생명사랑나눔 대축제**

일시: 5.7(토), 8(일) 양일간  
장소: 신학대학 운동장, 성감대건기념관  
내용: 바자회, 사회복지박람회, 다문화축제  
바자회 참여 및 판매물품 기증요망  
문의: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253-9991

— 성소 / 피정 —

**전례꽃꽂이 연구회 사순피정**

일시: 3.21(월) 10:00~16:00, 교구청별관대회합실  
문의: (010)5501-4042  
※ 교구100주년 전시회 출품신청 3.26(토)까지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대구관구**

렉시오디비나: 매주 금요일 19:30  
성경에 관심 있는 33세미만의 미혼여성  
이삭모임: 매월 넷째 주일 13:30  
성소에 관심 있는 33세미만 미혼여성  
문의: 659-3404 / (010)3803-8973

**곶벚나무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넷째 토요일 14:00  
장소: 월배수도원  
문의: (010)5064-7467

**마음을 더가볍게 하는 피정(지도: 최봉도신부)**

일시: 4.15~17/5.13~15/6.10~12(금~일)  
13:30 시작 ~ 13:30 마침  
장소: 경북 왜관성베네딕도 피정의집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문의: (010)5613-1762 / (054)971-0722

— 모집 / 교육 —

**대구가톨릭음악원 오르간 · 성악 전공반 모집**

문의: 255-4847  
**여성부 인정 가정폭력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모집**  
교육기간: 3.21~6.20매주(월) 9:30~18:00  
대상: 전문대졸이상 졸업자  
교육비: 30만원(교재비 포함)  
문의: 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새빛학교 기초영어 · 한문반 모집**

영어개강 : 3.22(화) 13:00  
한문개강 : 3.22(화) 15:00  
문의: 476-3100 (교대역)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4기 모집**

설명회: 3.26(토) 15:00, 접수: 3.26~  
회화전담강사선형대비, 무료어학연수  
미국유학시 학점인정, 1년내 석사학위  
자녀동반유학시 자녀학비무료  
문의: 526-0111 (<http://tesol.cu.ac.kr>)

**제6기 『세상속의 영성수련』 교육안내**

이나시오영성의 묵상과 관상  
예수는 누구인가, 믿는다는 것, 묵상 1·2

기도란 무엇인가, 관상, 원리와 기초  
일시: 3.25~5.13(금) 10:30~12:30, 6만원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4층(793-3555)

**전광진 신부의 신앙 강좌**

기간: 4.12, 8주간(매주 화 14:30~16:30)  
강좌 후 미사가 봉헌됩니다.  
장소: 한티 피정의집  
수강료: 8만원(매 강좌 분납 가능)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제44기 선교대학 개강**

일시: 4.16(토) 10:00~16:00  
장소: 계산문화관 1층, 선착순 무료신청  
주제: 찾아가는 선교  
지도: 이관석 신부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팀모집**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255-1582 (평일 14:00이후)

**성요셉마을 입소 장애인 모집안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  
소재지: 김천시 남면 오봉리 201  
모집기간: 충원시까지 (054)435-4176

— 안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혜순(헬레나), 홍순봉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1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한티성지후원회 월례미사	3월 21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포항지역 군중후원회미사	3월 21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22일(화) 오후2시	성모당
			공소후원회 미사	3월 26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2484 익스프레스**

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안경원 리네뜨**  
T. 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프란체스카)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여거리 ↔ 변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예금과 대출은**

- 신속하고 간편한 - 이파트답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UNION SAVINGS BANK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

대중 · 학문(지질, 번비) 전문클리닉  
**늘 시원한 학문외과**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지질 · 번비, 소아번비 · 번실금, 위 · 대장내시경  
여성전용 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차질치료), www.hangmuns.com  
신력대우아파트 복원오거리



**악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 · 요통 · 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30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 네거리(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출구)  
원장 채희갑 (바오로)